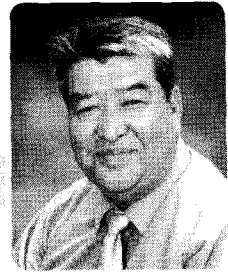


【특집 : 사료산업 50년 회고와 향후 산업방향 제시】

## 사료협회를 중심으로 IMF위기 슬기롭게 극복



김영욱

(주)체리부로 부회장,  
前 한국사료협회 부회장  
前 한국사료협회 원료구매위원장

우선 무엇보다 한국사료협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반세기동안 협회의 창립·존속·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번 협회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참 용케도 협회가 이만큼 발전하였구나’ 하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협회 50주년의 역사야 말로 대한민국의 축산업의 역사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료·농후사료를 통틀어 벗짚 이외에는 사료자원이라고는 구경하기 힘들던 국내에서 배합사료를 연간 1,750만톤이라는 경이적인 생산량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료산업이야 말로 한국 축산의 버팀목으로서 곳곳이 그 역할을 해 왔으며, 축산물의 생산·유통 등 축산물 시장의 외형은 다른

분야들이 더 커졌지만 통합된 주체로서의 사료의 외형만큼 큰 부문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사료가 국내 축산업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 영과육 역시 사료업계의 몫 일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협회 50년의 역사를 회고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 부분은 현대사료 문철명 사장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적임이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협회의 모든 역사를 가장 잘 알고 기억하시며, 그 뒷얘기까지 소상히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직접 경영에 참여했던 1990년 이후 협회 역사상 가장 격동적이었던 IMF를 겪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지면을 통하여 서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에피소드 I

■ IMF 직후의 사료협회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대외채무를 갚지 못해 발생한 국가 부도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IMF의 강력한 경제개혁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아래서, IMF 구제 금융을 수용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사료협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공교로운 시기였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국가가 부도가 날 지경이 되니, 외국의 모든 신용기관들이 사협 회원사들이 발행하는 모든 신용장을 받아줄 곳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로지 정부의 지불보증만이 유일한 희망 이었습니다.

당시 사료협회장은 이병석 회장, 정부의 실무책임자는 조일호 농림부차관, 이영래 차관보가 실제 행정업무 처리자였으나, 정권 인수기간이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1월 24~25일경(정확한 날짜는 기억에 없음) 신 정권의 정권인수팀장인 김종필 총리(당시 지명자 신분) - (DJP연합에 의한)와 김용환씨가 농업관련 단체장들을 모아서 IMF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고 당장 화급하게 요청할 사항들을 주문하였습니다.

당시 협회 부회장으로 있던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여 「1998년 1월 19일까지 사료회사들의 L/C가 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

든 닭, 돼지, 소들이 다 굶어 죽게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총리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김용환씨 그 얘기 좀 자세히 들어봐요」하고 대경실색을 하였고 나는 사료회사들의 원료구매 관행과 수송기간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농업관련 회사들이 국내 모든 가축들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에 다들 놀라서 그 부분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며, 최우선으로 사료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그 시기는 미국의 크리스마스 휴가기간 (통상 12.15~1.15)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내의 관공서나 은행들이 업무처리를 제 날짜에 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하기 어려운 시점 이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다 연말연시 휴가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1월말이나 2월초가 되어야 겨우 소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스마트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농협에서 L/C를 열어주기로 하고 GSM 102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행정업무처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협회 회원사들이 원하는 기간 중에 L/C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웠습니다.

당시 관련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 주었



으며, 이병석 회장, 조일호 차관, 이영래 차관보, 미곡물협회 박영인 회장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이 총동원되어 IMF극복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본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피소드 II**

**■ 대두박 수입 자유화와 대두유 연계 종속 단절**

두 번째 에피소드역시 IMF때 얘기입니다. 당시까지 국내에 사용되는 대두박은 미산 대두를 수입하여 콩기름을 짠 후에 남은 박을 사용하였는데, 콩기름의 국제가격 경쟁력에 의해 대두박의 가격이 결정되는 종속 변수였습니다.

즉, 국제적으로 콩기름은 다른 기름들(예 : 팜유 등)에 의해 기름값이 자주 떨어지게 되니, 상실된 경쟁력을 대두박으로 상쇄시키고자 높은 대두박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것 이었습니다.

국내산이라는 신선도를 감안하더라도 시기별로 터무니 없을 때가 많아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대두 수입에 의한 종속 변수 가격책정정책은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다행히 GSM 102 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에 따라 대두와 대두박의 외환배정 쿼터를 별도로 책정함으로써 국내 축산농가들의 경쟁

력을 확보하는데 큰 몫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게 집요하게 미국 측을 설득하며 애를 써 준 분이 미국대두협회 조세영 대표였습니다.(현재 재직 중)

국내 양계, 양돈, 양어 농가들의 국제경쟁력이 걸린 문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미국과의 시차를 감수하면서 미국의 낮 일과 시간에 맞추느라고 많은 시간을 밤일을 감수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에피소드 III**

**■ 원료성분 분석기관으로서의 사료 사료 기술연구소**

협회 부회장으로 재임시 네덜란드의 사료공장과 관련기관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네덜란드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이면서 농업수출액 세계 1위를 하는 나라 -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 될 만한 나라라고 감탄을 하면서 당장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사료원료 및 성분의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비용을 줄이고 낭비를 막는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료공장이 거의 다 보유하고 있는 실험분석실과 장비 등을 제도적으로 통폐합하고 사료기술연구소 시스템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면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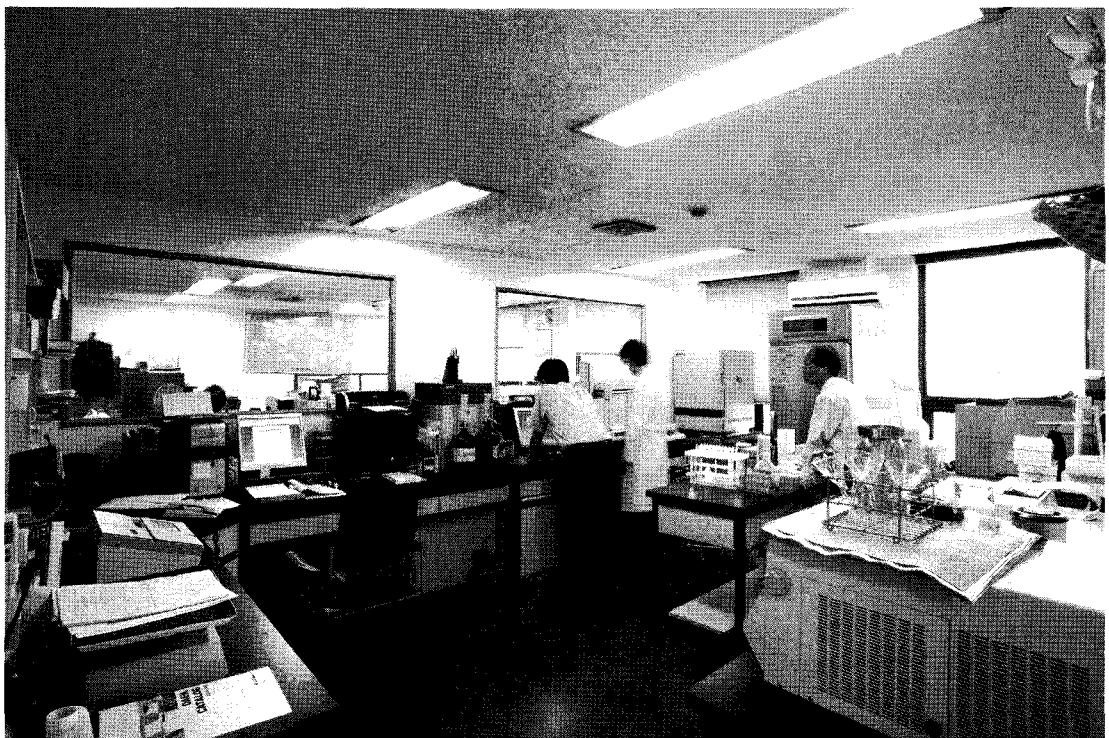
분석비 역시 경쟁을 유도하면서 회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면 축협이나 단미 협회 등과 역할분담을 하면서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데도 심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 ■ 마치면서...

협회 창립 50년을 회고하고 향후의 50년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의 생산비의 국제경쟁력입니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등의 정책에 의해 국내산 축산물이 보호(?)를 받아왔

으나, FTA 이후에도 과연 국내소비자들이 계속 비싼 국내산을 소비해 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외국산과 경쟁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우리의 미래가 달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료기업들의 글로벌화입니다. 반도체·선박·자동차·TV·전화기 등을 해외에 내다 팔면서 축산물은 들여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국내 소비자나 해외 소비자나 소비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위생적이고 좋은 품질의 축산물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새롭게 하는 향후 5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본회 사료기술연구소 전경